

건설과 산업재산권

어떤 기업이 비계를 지표면에서 세우지 않고 간단하게 벽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100 층의 건물을 짓기 위해 수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가운데, 한 회사만이 위 특허권에 의해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지표면에서부터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면, 누가 그 공사를 수주할 것인지는 명백해진다.

매 일 3회 이상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 모양을 감상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어느 책에서 읽었다. 도시 생활하면서 우산을 갖고 출근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목적 의식 없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출퇴근할 때면 나도 모르게 목을 크게 뒤로 젖혀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마치 하늘에라도 닿아 있는 듯 39 층의 높은 주상복합 건물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지척간에 들어선 이 건물은 거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맨 꼭대기 몇 층에는 거푸집이 앙증맞은 모습으로 거대한 몸체의 윗부분 일부를 감싼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건물의 아래층에는 벽체와 창문 공사를 끝내고 내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 같아 보인다. 어릴 적부터 보아 온 건물 공사는 항상 먼저 철근을 조립하고, 거푸집을 짜고 콘크리트를 섞어 집어넣어 양생되면 그 둘레로 비계를 만든 뒤 그 위층을 지어 올라가는 식의 형태였다. 어릴 적 생각으로는 높은 건물에는 어떻게 그렇게 높게 비계를 세우고, 어떻게 콘크리트를 위로 날라 올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건물은 어릴 적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상이한 새로운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다. 더 이상 땅에서 건물 끝까지 이어진 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젠 더 이상 골조 공사를 끝낸 뒤에 내부 공사를 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작업 형태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발상의 전환에 의해 개발된 결과이다.

건축공사에는 간단한 나사못에서부터 혁신적인 시공 방법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자재와 시공 방법이 사용된다. 그 중 많은 부분은 건축 공사에 적합하도록 개량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자재나 시공 방법이 시도될 수도 있다. 국가에서는 개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새로운 자재 또는 시공 방법에 대



조용식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

해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신기술 지정 등 산업재산권의 형태로 개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세계 5대 강국에 포함될 정도로 발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 통신, 생명 공학, 산업 기기 업계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각 업종별 산업재산권의 등록 건수를 비교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건설업계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권리

에 무관심해 보인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려는 의지도, 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건축 공사를 시공해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UR 협상 타결 이후 사업의 개방화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건설업계 또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많은 외국의 우수한 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업을 벌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권리화해 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특한 방식과 자재를 사용해 영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것임은 뻔한 일이다. 결국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권리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어떤 기업이 비계를 지표면에서 세우지 않고 간단하게 벽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100 층의 건물을 짓기 위해 수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가운데, 한 회사만이 위 특허권에 의해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지표면에서부터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면, 누가 그 공사를 수주할 것인지는 명백해진다.

흔히들 21 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술의 혁신이 중시되고, 개발한 기술의 권리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